



송산스님

승산스님 미주지역 포교 30주년 기념

일대기 '구도' 현지무대 오른다

한국 해외포교의 살아있는 역사인 조계종 원로의인 승산스님(화계사 조실). 미국 땅에 한국 불교를 전한 지 30주년을 맞아 스님의 미주 포교 과정을 그린 작품 '구도(The Dharma Path)'가 현지 무대에 오른다.

11월 5일 링컨센터서

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극작을 맡은 광재환 법사는 "고행과도 같은 원력으로 30년 동안 미주 포교를 해 온 승산 스님의 발자취를 현대 감각에 맞는 공연 형식으로 무대에 올려 스님의 큰 뜻을 본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승산 스님의 역을 맡은 연극인 김용준씨는 "큰 스님의 역할을 통해 나 또한 구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하루에 1천배 기도를 올리며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장으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득도한 스님에게 관객들이 삼배를 하면서 막을 내린다. 총 공연 시간은 1시간 25분이다. 문의 뉴욕 조계사(1-718-706-1749).



송산 스님 미주 포교 일대기를 그린 '구도' 제작자들이 뉴욕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준, 홍준호, 유지 스님, 홍준의, 광재환 법사(사진 중앙일보 제공).

1966년 일본시작으로 해외포교활동

현재 33개국 120여 사찰에 신도 10만

송산스님은 누구?

송산스님은 해외에서 달라이라마, 티베트, 마하 고사나다와 함께 세계 4대 생불(生佛)로 불린다.

지난 66년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포교를 시작. 현재 33개국에 1백20여개의 사찰과 10만명의 신도를 지도하고 있는 송산 스님은 지난 72년 미국 방문 때 미국인들

이 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포교에 나섰다. 보스턴의 한 아파트에 선방을 차려 놓고 한국의 선을 가르치다 따르는 불자들이 늘어나자 73년에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지역에 흥법원을 세웠다. 스님은 또 75년 맨해튼에 '조계 인터내셔널 센터'를 설립. 한인은 물론 타민족을 대상으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쳤다.



이거룡교수의 스리랑카 불교 기행

글 쓰는 순서

- 1 삼과 종교의 일치
- 2 야자수 앞에 세진 불탑, 폐업경(貝業經)
- 3 숲 속의 수행자들, 아란야(Atanya) 전통
- 4 살아있는 부처님, 보리수

부처님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항상 나무와 관련을 갖는다. 알다시피 탄생의 순간에는 모친께서 무우수 가지를 잡고 계셨다. 정각과 열반의 순간에는 각각 보리수와 사라수 아래 계셨다. 이

보리수는 아누라다푸라 보리수의 손자 격에 해당한다고 전해진다.

대개 보리수 하면 선전에 든 부처님을 떠올리기 쉬우며,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는 으레 좌선에 든 순례자들이 있다. 그런데 스리랑카의 보리수, 승배의 식(bodhipujja)은 전혀 다르다. 대개는 보리수에 꽃이나 과일, 향 등을 올리고 자신의 소원을 빈다. 뿌리 주변에 물을 붓기도 한다. 출산 혹은 치병(治病)이나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 보드부자를 드리며, 때로는 보리수에 가사나 불기



수령이 2200년이라고 전하는 아누라다푸라 사원의 보리수.

꽃·향 치장, 佛旗 걸어놓고 소원 빌어 영원한 진리 불법의 살아있는 상징

중에서도 부처님의 정각과 관련된 보리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의 회화나 조각에서 무우수나 사라수가 아니라 보리수로 부처님을 나타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리랑카불교는 특히 보리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 기원전 3세기 경 아쇼카왕의 딸 상가미타(Sanghamitta) 비구니가 스리랑카로 건너갈 때 보드가야의 보리수 싹을 가져다가 아누라다푸라에 옮겨 심었다. 나중에 보드가야의 보리수가 이교도들의 박해에 의해 잘려나가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을 때, 아누라다푸라에 옮겨 심었던 보리수의 묘목을 다시 가져다가 보드가야의 대보리사에 심었다고 한다. 보리수의 모친회귀인 셈이다. 현재 보드가야에 있는

(佛旗)를 걸어주기도 한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리수 외에도 불족(佛足)이나 보좌 혹은 스푸파도 있지만, 보리수 승배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를 숭배하기 때문이다. 대개 승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대척점에 있기 마련이다. 무상한 인간의 삶과는 다른 이른바 영원 불변의 무엇이라 승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리수 승배는 다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무상한 대상 속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보리수는 우리와 똑 같이 몸 가진 존재로 와서 영원한 진리를 이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상징이다.

동국대 연구교수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인 불교계 세미나·토론회 활발

의례·정체성·부다가야 사원 운영권 문제 등

최근 인도 각지에서 불교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어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단체인 프라부다 바라피 인터내셔널(Probuddha Bharati International)은 지난 달 27일 '오직 불법만이 테러를 막을 수 있다'라는 주제 하에 뉴델리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인도 비구 대연합' 회장인 가네스와르 스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날 테러리즘은 세계 평화의 단절, 우의를 깨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국가들은 위기의 시대에 불법이 세계를 테러와 공포, 불의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 정부 소속 소수민족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 로젠 톨루 림포체는 불교가

이성과 논리에 바탕을 둔 종교로서 교육받고 이해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된다고 전제, 따라서 초등교육의 전파에 더욱 힘을 기울이면 정토 사회가 보다 빨리 이뤄질 것이라는 오지의 발표를 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북부 인도 찐디가르 시에서 '암베드카르 박사 연구회(Dr. Ambedkar Study Circle)' 주최로 '왜 암베드카르 박사는 불법에 귀했는가'라는 주제하에 세미나가 열렸다. 인도에서 불교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특수성에 대해 토론하고, 최근 북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일고 있는 개종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는 취지로 준비된 이 세미나는 특히, 인도 전국의 불교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발표 논문을

공개 모집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연구회는 편잡 지역의 지식층 불교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불교 연구단체다.

불교 학술 세미나 붐은 남인도 지역에게까지 전파돼, 오는 9월 22일에는 하이드라바드 시에서 안드라 프라데시 불교도 트러스트(Andhra Pradesh Buddhist Trust)가 세미나를 주최한다. 불교 의례, 불교도의 정체성, 부다가야 사원 운영권 문제, 승려와 사찰의 사회적 역할, 외국 불교단체들의 영향, 불상, 비록력 계율의 현실적 적용 문제 등 현대 인도 불교가 안고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주제로 정해져 분임토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불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최근 인도에서 열리는 불교 학술 세미나는 사회참여의 성격이 강한 인도 불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도 불교인들의 현실 인식과 종교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도 푸네= 이지는 통신원

티베트 제17대 까르마파 "카규사원 방문 희망" 회견

지난 2000년 티베트에서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방명정부로 탈출한 티베트 불교 카규파의 제17대 까르마파인 우기엔 트린리 도르지(Ugyen Trinley Dorje, 16세)가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 앞에 나섰다. 중국을 의식 대외활동을 자제해 온 까르마파는 16일 인도 캘커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004년까지 인도 시킵주 근처의 카규파 소속 사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까르마파(사진)는 1959년에 반중국 봉기 실패 후 달라이라마와 많은 불교 지도자들이 티베트를 탈출, 인도로 망명 이후에 중국을 탈출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17대 까르마파는 인도 시킵주에 있는 카규파의 망명 본사에서 원로들의 분열적인 주도권 쟁탈전 이후 16대 까르마파의 학생자로 선택되었다.

http://www.sunfaavatar.com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고통이 바뀐다

당신은 영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원인을 찾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직업을 원하십니까? 물고 싶은 영혼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영혼이 지니고 있는 영혼의 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영혼을 이루고 있는 영혼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고통이 바뀐다.
이러한 원인을 찾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려, 영혼의 고통을 풀리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선재아바타 센터

☎ 02-362-3647 ☎ 018-206-3647 E-mail: avatar@sunfa.com.kr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북이현동 114-1 북이현연선 2층 502호

불교의식(범음·범패), 기악 학인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 과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법(속성과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태평소(호적)

■ 모집인원: 각 반 20명(선착순)

■ 원서접수: 수시모집

■ 제출서류

| | |
|----------|----|
| 이력서 | 1통 |
| 입학원서 | 1통 |
| 반명함사진 3매 | 3통 |

■ 문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 法人 **일승불교대학**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교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 ▶ 기간: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 강의: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장소: 본 연수원 ▶ 지도교수: 김철환 박사
-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중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태광 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 백팔달마 팔은 재수부 ▶ 12띠 수복 달마

▶ 달마 백복도 ▶ 글본 불자 달마(색상지) ▶ 불자 반야 심경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상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현, UN IAEWP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현, 한국어린이 보충재단 특심사 후원회장
- 불사 후원 신청: 국민은행 075-01-0349-506 특심사 전 화: 02)839-7829

판매처: 불교의서출판사, 새문안, 한국문화사, 불교출판사, 불교신문사, 불교신문사, 불교신문사

당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 씨트리 키토산은 당뇨병에 경이적인 식품입니다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탕의 1/100분의 1 정도만 포함되어 있어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씨트리 키토산은 당뇨병에 경이적인 식품입니다. 씨트리 키토산은 당뇨병에 경이적인 식품입니다. 씨트리 키토산은 당뇨병에 경이적인 식품입니다.

씨트리 키토산 5g x 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용,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불 아물당에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씨트리 키토산 5g x 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부품 및 상담 ☎ 02) 598-9632
무휴 전화 060-598-9632